

인터뷰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 청년 의원으로 국회 향한다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이지민 기자 delicato@khu.ac.kr

#. 대한민국 국회에 90년생이 온다. 전체 의석 수에 0.02%도 미치지 못하지만 기성세대의 특권으로 여겨지던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만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청년 정치인들이 정당을 위한 장식품처럼 여겨졌던 것을 넘어 세대교체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되는 순간이다. 우리신문은 제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90년생 당선자 3명 중 우리학교 동문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 씨를 만나봤다.

“주위에서 ‘결국 국회의원이 됐네’라는 말씀을 많이 한다. 학교생활 내내 정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제가 하는 일들이 가망성 없다고 본 분들에게도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드린 것 같다.”

용혜인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5순위로 당선 확정됐다. 재학 중 용 씨는 누구보다 학교생활에 열중했다. 남들보다 오래 학교를 다니며 20대를 학교생활로 가득 채웠고, 학과 학생회장도 지냈다. 용 씨는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며 “지난 20대의 기간은 지금의 30대를 만드는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냈고,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느 학생들처럼 학업에 열중하던 시기도 있었다. 용 씨는 웃으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 학과 교수님들이 안 믿으실 텐데 1, 2학년 때에는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마주한 경험들은 현재 용 씨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용 씨는 친구들을 따라 종합편성채널 반대 집회에 나가고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고공시위를 응원하는 희망버스에 오르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 씨는 이번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도 했다. 이때 겪은 현장은 용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 아직도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이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제가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폭력적인 현실을 직접 목도하며 용 씨는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갔지만, 졸업을 앞두고선 평범한 삶을 준비했다. “학년이 올라가니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 제가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결심했다.” 물론 고된 수험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용 씨는 안정적인 삶과 원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용 씨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의미 있을까 고민했다. 내가 돈을 못 벌고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사회에 대한 사명감보

다는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우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용 씨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학교로 되돌아갔다. 이어 용 씨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는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다. 304명이 죽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목격했다.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굉장히 후진적인 참사였다.” 참사 직후 용 씨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했다. 이때 용 씨는 “이를 주도하며 중간고사 이후로는 수업을 하지도 못 들었다. 기말고사만 치르고 학기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후 용 씨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이 무시되는 한국 현실에 분노하며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다.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사건 이후에 수습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 굴레를 벗어던지려면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결

심했다.” 용 씨는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느낀 무력감과 분노가 자신뿐만 아니라 세월호 이후 청년 세대를 구성하는 공통점이라고 봤다. “당시 부당함에 모든 국민이 움직였다.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 2014년 이후 대학을 입학한 후배들을 만나보면 세월호 참사에서 큰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인 이 세대에게는 특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용 씨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은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N번방 사건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탈가정 여성 청소년 보호 ▲장애인 부양 의무제 폐지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이때 용 씨는 “아러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너무 지체됐다. 물론 구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50, 60대 남성들이 주축인 국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20, 30

대 여성들이 분노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이 안 될 것이다.”고 지난 국회의 행태를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 씨는 이번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논의부터 진행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 연합정당을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용 씨는 “기본소득은 2만 명 당원들이 열망하는 중요한 실현 과제다. 실현을 위해 ‘연대연합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소수정당의 권리가 보장됐고 당선 가능성도 보장받았다.”며 논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용 씨를 둘러싸고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국회에서 11번째로 국회의원 배지를 받은 용 씨는 지난달 28일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에서 ‘금배지 언박싱’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용 씨는 “영상이 편집되며 배지를 팔면 안 된다는 대답이 빠져 오후의 소지가 생겼다. 표현이 투박했던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소수정당 초선 여성 의원은 발언권이 약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논란이 되는 것은 제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심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용 씨는 “언젠가 국회의원이 되어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당선이 되니 어깨가 무겁다. 경희대학교에서 쌓았던 경험과 그 기억들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4년 동안 자랑스러운, 믿을 만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린다.”며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각오를 전했다.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주요변경사항]

- 수업료: 학점당 97,000원
- 계절학기 '희망과목담기' 실시
  - 개설강좌 확정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가 목적이며 정규학기 희망과목담기와는 다름
  - 전공(필수, 선택) 및 대체능 계열 전공 및 실험실습 강좌 확대
- 수업방법: 대면 수업 예정(원격수업 포함)
  - 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예정
- 추가 수강신청 실시: 1차 수강신청 및 등록 이후 여석에 대한 추가 수강신청 실시
  - ※ 2020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 실기 강좌 수업 집중이수기간과 하계 계절학기 수업기간이 일부 중복 될 수 있으니 계절학기 수강 신청 시에 참고 바랍니다.

1. 계절학기 세부일정

구분	일시	비고
희망과목담기	2020.5.18.(수), 10:30 ~ 5.15.(금), 17:00	
개설과목 공고	2020.5.20.(수)	개설강좌 확정 및 공고
수강신청 기간(1차)	2020.6.3.(수) ~ 6.5.(금) 10:30 ~ 17:00	
수업료 납부기간	2020.6.9.(화), 09:30 ~ 06.11.(목), 16:00	
폐강공고(1차)	2020.6.12.(금), 10:00	
추가 수강신청 기간(2차)	2020.6.15.(화) ~ 6.16.(화) 10:30 ~ 17:00	수강신청 여석에 대한 추가 수강신청
추가 수업료 납부기간(2차)	2020.6.18.(목), 09:30 ~ 6.19.(금), 16:00	
폐강공고(2차)	2020.6.22.(월), 12:00	
폐강강좌 수강신청	2020.6.23.(화), 09:00 ~ 17:00	폐강과목 수강생에 한함
수업기간	2020.6.29.(월) ~ 7.20.(월)	16일
성적입력 및 열람	2020.7.20.(월) ~ 7.21.(화)	
성적정정일	2020.7.22.(수) ~ 7.23.(목) 12:00	
학점교류생	추천기간: 2020.5.29.(금), 17:00 까지	학번부여: 2020.6.3.(수)

\* 계절학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안내

-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 3학점	온라인 강좌	온라인 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3학점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3. 희망과목담기

-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 '희망과목담기' 실시 (실제 수요 반영)
  - 수업시간 및 교강사는 희망과목담기 이후 개설 확정 후 배정
- 운영방법: 희망과목 담기 완료 후 예비과목 담기 순(정규학기과 동일)
  - 희망과목: 수강가능학점(6학점) 내에서 담기 가능(동일강좌 중복 담기 불가)
  - 예비과목: 희망과목담기 완료 후 최대 3과목까지 예비담기 가능(동일강좌 중복 담기 가능)
  - ※ '희망과목담기' 인원에 따라 개설강좌가 확정되오니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희망과목담기 방법안내
  - ① 희망과목담기 기간에는 수요 조사를 위하여 강좌명으론만 개설되어 있음 (예: '글쓰기1(GEB1101-G00)' 강좌 1개로만 개설되어 있음)
  - ② 희망과목담기로 해당 강좌의 수요 조사를 통해 추후에 인원에 따라 강좌 분반 및 교강사 배정(희망과목 담기 기준 인원 미달 강좌는 폐강)
  - ③ 수강신청 시 분반 강좌 중 선택하여 수강신청
    - 1) '희망과목담기' 방법: [희망과목신청] → 조회 → [담기] → [희망과목내역] → 강좌 확인
    - 2) 수강신청: [수강신청내역] → 수강희망과목 → 강좌 생성 및 시간표 정보 확인 → [신청] 수강신청(예: 분반이 4강좌인 경우 4강좌가 모두 '수강신청내역 수강희망과목'으로 담겨 있음)

4. 수강신청

- 대상자: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휴학생, 학점교류 대학 학생
-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1) 타 대학 계절학기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제한범위에 포함됨
  - 2) 국제교류팀, 미래인재센터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신청 방법
  - 1) 정규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5. 수강등록

- 등록금액: 1학점당 97,000원
-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포털> 등록(장학) 등록> 계절수업료 조회
-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수강 신청한 캠퍼스별로 등록금 납부(캠퍼스별 가상 계좌가 다름)
    - ex) 학생이 서울·국제 동시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서울·국제 별도 납부
  - 3)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니 등록기간 내에 납입하기 바랍니다.

6.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2020.06.24.(수) 09:30 ~ 06.28.(일), 23:59	전액 환불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교 포털 → 로그인 → 등록/정학 → 등록 → 계절수업료 환불 → 대상 체크 → 환불신청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20.06.29.(월) 09:30 ~ 07.03.(금), 23:59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20.07.06.(월) 09:30 ~ 07.08.(수), 23:59	수강료의 1/2 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개설기준: 전공, 교양 15명 이상
- 전공 강좌 개설 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불가
- B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수업 재수강 신청 불가함(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 수강 신청 기간 이후 수강 강좌 변경 불가(수강 취소만 가능)
- 2차 폐강 과목 수강신청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각 캠퍼스 담당 부서 (서울: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교무처 교직원)로 방문
- 계절수업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F(또는 N)가 부여됨
- 계절수업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 휴학생 계절수업 수강 시 유의사항
  - 1) 휴학생 중 2회에 한하여 계절수업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 2) 수업 연한 초과자는 휴학 중 계절수업 수강을 불허함

8. 문의처

- 서울: 교무처 학사지원팀 / 02)961-0063 ~ 54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1층 113호
- 국제: 교무처 교직원 / 03)201-3047 ~ 8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본부